

공동 개최의 성취감

小島涼子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정책기획본부

10 월 18일(월)~19일(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1회 일·한 원자력산업 세미나에 일본측 대표단의 사무국 일원으로 참가하기 위해 17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의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에서 12편, 일본측에서 16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양국 발표자 여러분의 만반의 준비 덕분에 깊이있는 내용의 세미나가 되었다. 또 이번에는 「원자력 PA(국민적 합의)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양국으로부터 여성 전문가에 의한 발표가 있어 지금까지의 세미나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서울의 분위기는 도쿄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고층 빌딩군, 쇼핑센터, 술집거리, 자동차의 혼잡 등, 다르다고 한다면 모두 자동차 운전을 다들 잘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서투른 사람은 이런 혼잡한 교통의

흐름을 탈 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올 것이다.

또 일본과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일본어가 통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가 통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한국 여러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20~21일은 경주의 숙소를 기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 울진원자력발전소를 시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개발 역사를 열심히 설명해 준 책임연구원인 조만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연구로 「하나로」를 보았는데 하나로란 통일을 상징한 이름이라는 말을 듣고 사려 깊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주에서 울진 원자력발전소까지의 노정은 긴 여행이었지만 이곳의 시찰은 일·한 세미나의 메인 이벤트이기도 하다. KEDO 프로젝트에

의해 북한에 이 원전과 같은 형의 발전소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어 참가자들도 모두 흥미 깊게 견학했으며 회사로부터 “울진발전소는 꼭 잘 보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경주는 역사가 깊은 불교 문화의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일본으로 말하자면 교토와 같은 곳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교토보다 훨씬 넓직해 느긋한 인상을 받았다. 보문호반을 둘러싼 풍경이 특히 아름다웠다.

22일은 한국중공업(주) 창원 공장을 견학했다. 한국중공업 내에서도 최대 공장이니만큼 광대한 땅에 훌륭한 사옥과 공장들이 있었다.

디젤 엔진 공장·터빈 공장·단조 공장 등은 박력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 때까지 보아온 원자력 시설의 청결감과 달리, 물건을 만드는 것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껴 압도되고 말았다.

참가자 중에는 “공장안에 저렇게

만들 물건이 많다는 데 놀랐다. 일본에서는 공장에 주문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별로 없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제조 과정을 보고 흥분하고 말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장안을 안내해 주신 최병도 홍보과장의 상냥하고 밝고 친절한 설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밤은 부산에 머물렀다. 부산은 아주 좋아하는 거리다. 학생 시절 여름에 한번 온 일이 있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때 걸던 해변가, 푸른 바다, 내리쬐는 햇빛, 활기 넘치는 거리, 신선한 해산물이 생각이 난다. 바다를 건너면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첫 날 서울에 도착하고부터 조금씩 일본에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해변가 가게에서 마지막 단원 모임 임을 가졌는데 일주일간이나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일본측 단원 모두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상적인 기분에 젖고 말았다. 그 밤의 부산 바다는 한층 아름다웠다.

23일, 일본측 대표단은 부산에서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지만 나는 다른 일로 서울로 되돌아가 4일간을 지냈다.

그 동안 한국원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도 친절을 베풀어 주어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분들은 외부로부터의 손님에

대해서 극진한 환영을 베푼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된다. 아무래도 우리들은(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손님들에 대해 쌀쌀하게 대하는 것 같다. 또는 판사님 취급을 한다고나 할까.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다음번 일본에서 열릴 때는 그 답례를 하고 싶다.

일·한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두 원자력산업회회가 공동 개최하고 있지만 이 '공동 개최'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

하기 쉬운 것을 첫째로 삼는다면 어느 한쪽 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이 간단할 것이다. 의사 소통도 잘 되고 일을 결정하는 것도 빨리 끝나고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그 영향은 적다. 그러나 공동 개최가 되면 그렇게 쉽지 않다. 연락은 모국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세미나 관련 자료를 보내는 것도 날짜가 걸리고 한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공동 개최를 통해 배울 것도 많다. 한쪽에 대해서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잘 났을 때의 기쁨은 배 이상이 될 것이다.

또 서로의 지혜를 짜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한 발상도 할 수

있고 공부도 된다.

무엇보다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 개최가 갖는 장점일 것이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참가자들에게 이번 세미나에 대한 감상을 부탁했는데, 모두 하나 같이 한국 분들의 연구열과 원자력에 대한 의욕에 감탄했다는 말씀이 있었다.

일본측 발표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나와 이에 대한 답변이 힘들었던 것 같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동업자끼리의 정보 교환이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에 일본측에서 원자력 PA에 관한 발표 때문에 WEN이라는 단체에 속하는 여성 세 사람이 참가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의 교류를 계기로 한국측의 WIIN 멤버와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의 입장에서든 한국측 사무국인 한국원산과 협력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보다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 참가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세미나를 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참가자 여러분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받아들여 한국원산과 협력하면서 보다 좋은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 ☻